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을 위한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and Traits of Conversion Design Methods of Modern Architecture for
Renewal Use in Japan

노정은* / Lo, Jung-Eun
박찬일** / Park, Chan-Il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my concern over maintenance and renewal of existing buildings and other seriously damaged Modern Architecture under the urban development. Above all, we must face up to reality of an increasing need of renovation of old buildings that are in its physical, social, and economical decrepitude. Currently, 25% of total buildings come under renovation period within 20 years, which means that we do not have enough time to decide the destiny of old buildings. In the city, there has been endless controversy over conversation and development. Recently the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made it possible a positive usage of no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with historical value. This very useful system renewed our perception on Modern Architecture as cultural property and also triggered peoples' interest in recreating new value beyond economical one. So we really need a balanced view that can bring into both growth of contemporary city and renewal use of Modern Architecture. Here, in this study I tried to solve that problem with Conversion Design and define what a realistic design way for them is. To get more reasonable result, I chose a factor analysis for 20 conversion projects in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Conversion Design is a proper way to restore the identity of old buildings and the most effective way to sustainable use of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레노베이션, 근대 건축, 컨버전디자인

Keywords : Renovation, Modern Architecture, Conversion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들, 기존 건물에 대한 유지 및 보존활용과 그 가운데서 도시발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되었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의 물리적인 노후화의 문제와 더불어 오히려 기능적인 노후화로 인한 레노베이션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축 시장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반면, 재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 그리고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문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많은 건축물들이 신축 후 15~20년 후부터는 레노베이션 사이클에 들어가며 현재 전체 재고 건축물의 25%가 레노베이션 대상²⁾에 해당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제 건축과 그 건축물의 사후처리 즉 유지 및 보존활용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특성상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양립해온 가운데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근대건축물은 도시의 역사와 장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

** 이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부교수

***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윤영선,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발전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p.3

2)상계서, p.11

소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건축으로서의 사회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는 경제논리 중심의 도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치부되어 적극적인 개발의 희생물로 그 의미가 상실되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최근 등록 문화재 제도의 시행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정비되고 있다. 등록 문화재 제도는 근대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개념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 도시의 발전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근대 건축물의 보존활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재생과 기능적 불필요성에 의해 활용도가 저하되는 기존건축의 적극적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컨버전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컨버전디자인은 용도변경을 동반하는 전용(轉用)에 의한 공간디자인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이 갖는 특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디자인적 접근과 시도를 통하여 신축에서 얻지 못하는 건축적 특징과 의외성이 풍부한 건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그 가치와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의 컨버전디자인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접근에 한정되고 있어 구체적인 디자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한 수법의 정리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의 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기존건축의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동일한 용도로서의 재건축이라는 한정적인 방법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에 근거하여 근대건축물에 부여되어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생하고 활용하는 디자인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컨버전디자인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향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전개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근대건축물의 컨버전디자인 수법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근대건축물의 재생,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축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건축적 행위들, 즉 사후처리의 문제들인 건축물의 유지 및 보존활용 방법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용만이 건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과 부합하는 것임을 밝히며, 더불어 현대의 도시 속에서 근대건축물이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인 건축물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컨버전디자인을 유용한 디자인방법으로 제시하고 근대건축

물의 컨버전디자인의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 고찰하여 근대건축물의 재생,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2장에서는 건축의 재활용을 위한 컨버전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건축이 장소와 시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문제 또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진정한 보존이란 '인간에 의해 끊임없이 활용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지닌 유용한 존재로서 살아남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건축은 '변화 없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거쳐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재로서 보존의 대상으로서만 다루어졌던 근대건축물 역시 건축으로서의 본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 활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그 방법론으로서 컨버전디자인의 의미와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상기의 컨버전디자인의 방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행하여진 근대건축물의 컨버전디자인 사례의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일본의 건축전문지 '신건축'의 1970년 1월호부터 2005년 6월호에 게재된 근대건축물의 재활용 사례 62건 중에서 전용(轉用) 사례 20건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사례의 디자인 요소를 데이터로 하는 수량화3류와 클러스터분석을 행하여 컨버전디자인의 유형화와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근대건축물의 컨버전디자인의 방법과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 근대건축물의 컨버전디자인 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건축의 보존과 컨버전에 의한 활용

건축이 지닌 사회적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 본질적 가치의 의미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자리하는 공간적인 연관성 또한 달라지면서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된다. 장소성이 달라진 건축의 보존은 당연히 변화의 관점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것은 현재의 기준에 의한 가치 판단에 의한 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과거의 역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렇듯 보존과 변화는 서로 변증법적인 관계를 이루며 현재를 제공하고 있다.

보존에 관한 문제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존(保存, conservation³⁾)'은 '현재에 존재(存在)하고 살아 숨 쉬도록 애쓰

3)conservation은 사용하면서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preservation은 보호책을 강구해서 위해로부터 지킨다는 뜻으로 풀이 되기도 하나 최근에는 각 국가마다 그 쓰임을 혼용해서 쓰고 있으므로 특별한 의미는

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생명력의 부여'야 말로 보존의 본질이며 우리가 건축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란 살아있음(活)을 뜻하고 건축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능을 발휘함, 즉 활용(活用)을 말한다. 결국 보존이란 '건축이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건축이 활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건축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일정한 '기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시간성과 장소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동일 기능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건축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과거의 모습으로부터의 물리적 변형은 건축이 새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건축물의 입장에서 기능성의 획득은 중요한 문제이며 건축가와 공간디자이너에게는 건축의 생명을 지속시켜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활용'의 문제에 당면하여 그 실천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함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역사적 건축물⁴⁾들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활용방법에 따른 유형들을 연구하여 정리한 것으로 다양한 활용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활용의 형태와 방법

활용유형	활용방법
계속형	건물의 용도를 바꾸지 않고 종래의 모습 그대로 계속 활용하는 방법
전용형	당초의 용도를 변화시켜 다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
부활형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있지 않던 건물과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거쳐온 건물물 새롭게 건립당시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이벤트형	일시적인 행사 및 공연등에 사용되는 방법
공개형	건물의 모두 또는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

옛 건물이 그대로 활용될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건축물은 그 특성상 노후(老朽)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체계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제 건물의 물리적 노후가 아니라 기능적 노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기능적 노후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표 1>의 '전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용(轉用)'은 1. the act of converting; changing 2. turning의 뜻을 갖는 컨버전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역사적 건축물이라고 함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뜻한다.

5)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2006.3, p.112

(Conversion)으로 표현된다. 컨버전의 개념과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adaptive reuse', 'transformation' 등이 있으며 모두 기존용도의 전환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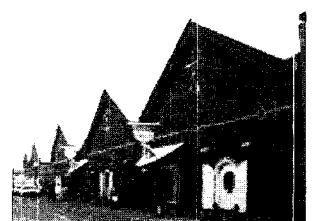
'컨버전이란 기존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순환-전환하는 환경에서,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기존 건축물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⁶⁾ 사용용도의 변화는 변화없는 명맥유지가 아니라 건물의 예술적, 역사적, 경제적인 효용성을 배려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을 현대의 시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움을 발견해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축되어진 건축물에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적 표현과 공간의 창조를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주목되어지고 있다.⁷⁾

2.2.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 및 활용과 컨버전

일본에서의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재생, 활용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 전반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던 쿠라시키(倉敷)아이비 스퀘어 프로젝트가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다. 쿠라시키 아이비 스퀘어는 벽돌조의 방적공장을 호텔로 전용한 예로 근대건축물의 전용이라는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⁸⁾



<그림 1> 쿠라시키 아이비스퀘어



<그림 2> 하코타테 히스토리 플라자

그 이유는 쿠라시키(倉敷)아이비 스퀘어 이전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전용의 사례가 문화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박물관이나 자료관과 같은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용도변환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본격적인 상업적 용도를 위한 최초의 전용 사례라는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 그러나 일본에서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생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

6)고회정, 전환개념에 의한 역사적 건축물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96, p.5

7)일본 수도대학동경의 코이즈미 마사오 교수는 컨버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설계를 진행할 때, 부지조건을 살려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처럼 컨버전은 기존의 건물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살리며 그 위에 새로운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존의 건물은 인공의 지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SD2005, 鹿島出版會, 2005, p.87

8)大和智, DETAIL, 155, 彰國社, 2003, p.42

한 것은 1980년대의 도시재개발에 의한 상업지구활성화에 의한 민간사업의 전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⁹⁾ 1987년의 삿포로맥주 기념관의 대규모 레노베이션, 1988년의 하코타테 히스토리 플라자(카네모리 창고군)의 전용<그림 2>과 동경역 갤러리의 개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까지 문화재 보호의 연장선상에서 소극적인 재이용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도시의 어뮤즈먼트로서 근대건축물의 현대적 재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1980년대 후반의 근대건축물의 보존, 재생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은 최근 일본의 도시재생, 지역진흥개발계획 등의 붐과 함께 문화적 측면의 좁은 틀을 벗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 건조물보존에 의한 용적율의 완화 또는 이전이 특별지구에 인정(특별용적을 적용지구제도에 의함)되어지는 등 제도적인 정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동경의 오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지구가 그 대표적인 지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정의 이유로는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복원, 문화적 환경의 유지와 향상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구 전체로서의 토지의 고도이용을 촉진하고 질 높은 업무기능에의 갱신, 상업과 문화기능의 집적 등을 도모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명기되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지원은 역사적 건조물 등록제도의 도입 및 활용의 추진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보존적 측면이 강조되었던 관점과 민간의 경제적 이해를 포함한 사회적 요구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은 상기와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도시재생, 지역개발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역사적 건조물의 재생에 필요불가결한 기술적 측면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인 수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구상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컨버전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디자인은 본래의 기능과 목적에 없는 것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재구축하는 디자인 수법으로 그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¹⁰⁾

이상과 같은 일본의 근대건축물의 재생, 활용과 관련한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3.1. 조사대상 공간의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분석

(1) 조사대상의 선정과 분석방법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 잡지인 '신건축(新建築)'의 1970년 1월호부터 2005년 6월호까지 게재된 근대건축물의 재이용 사례 62건 중에서 전용(轉用) 사례만을 수집하여 모두 20건을 조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¹¹⁾<표 2>

<표 2> 조사대상 건물의 개요

No.	전경	평면	개요
S1.카나자와 시립도서관			1913년 담배공장으로 준공한 건물에 신관을 증축하여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함.
S2.요코하마 개항자료관			1917년 영국 영사관 건물을 복원 개축하여 자료관으로 활용함.
S3. 세이료유회관			과거의 중학교 건물을 동창회 건물로 사용함.
S4.고베시립 박물관			1935년 준공된 도쿄은행 고베지점을 고베시립박물관으로 증개축 전용하여 활용함.
S5.군마회관			1935년에 준공된 창고건물을 복원시키고 디자인을 응용하여 회관으로 활용함.
S6.게이오대학 도서관			1912년 준공된 도서관을 외관 복원, 의장복원과 구조 보강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함.
S7.키타오지다 카오단지			1908년 지어진 벽돌조 방직공장건물을 단지의 심벌적인 집회장으로 활용함.
S8.히메지 미술관			육군무기고와 시청사로 사용되어오던 벽돌조 건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함.
S9.로코파이물			1890년 준공된 벽돌조의 황마공장건물을 인테리어 마트로 수복, 활용함.

11)신건축은 1925년 이래 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축 전문잡지의 하나라는 점과 1974년 5월호부터 1975년 12월호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공간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 점, 그 후 10년 후인 1983년 3월호에서 다시 역사적 건축물의 레노베이션 현황과 그 후의 활용상황에 관한 내용을 126p에 걸쳐 특집 기사로 다루고 있을 만큼 근대건축물의 재생과 활용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전문잡지라는 점 등에 주목하여 일정한 수준의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9)SD2005, 전게서, p.42

10)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컨버전디자인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 수도 대학동경 건축학전공의 문부과학성 21세기 COE연구 프로그램 테마인 '거대도시 건축스톡의 부활갱신기술육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S10.타이퐁당 서점			1955년 준공된 주택을 개조하여 건축토목 전문서점으로 활용함.
S11.카가와토요 히코 자료관			쇼와 6년에 지은 성당건물을 일부 해체 보존하여 유치원과 기념관으로 활용함.
S12.VILA DEL SOL			1899년에 지어진 개인도서관을 이축하여 별장으로 사용해 오던 중 준공당시로 복원 증축하여 호텔로 사용함.
S13.코도문화 박물관			1906년 준공된 은행건물을 복원하고 신관을 신축하여 박물관으로 활용함.
S14.니혼화재요코하미지점			1922년 준공된 네오르네상스 양식의 석조건물을 해체 복원하여 오피스로 활용함.
S15.치바시 박물관			1927년에 지은 은행건물을 보존 증축하여 미술관과 구경으로 활용함.
S16.와라베관			1930년 준공된 헌립도서관을 해체한후 복원 증축하여 박물관으로 연출함.
S17.구모지세관			1927년의 세관건물을 부분적으로 동태보존하고 구조체를 삽입하여 보강한후 전시,공연장으로 사용함.
S18.구고베거류지			지진으로 무너진 1881년의 호텔건물을 복원하여 레스토랑으로 활용함.
S19.신종관			1926년의 전화국을 상업공간으로 전용하여 전통과 혁신의 대비와 융합을 보임.
S20.오코하마카뎡가창고1,2호관			옛 창고건물들을 복원,개수하여 상업공간으로 활용함.

상기의 대상사례 중 동태적 보존의 사례는 단 3건에 불과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축이 함께 이루어졌고 모든 사례에 있어서 기존 건물의 내부개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컨버전디자인의 요소들을 설명한 문장 또는 단어를 추출하고 유사한 수법을 설명한 표현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컨버전디자인 요소로 정리하여 41개의 컨버전디자인 요소를 작성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얻어진 컨버전디자인 요소가 각 사례별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또한 컨버전디자인 요소의 적용여부의 판단은 ①신건축의 본문 설명내용에 해당 컨버전디자인 요소의 적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②사진(또는 도

면)에 해당요소의 적용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가. ③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컨셉) 등에 해당요소의 적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의 3가지 기준에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해당요소가 적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 사례별 적용여부를 매트릭스표<표 4>로 작성하고 적용여부를 1/0형의 더미변수화하여 수량화3류12)에 의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사례와 컨버전디자인 요소들과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수량화3류에 의해 얻어진 분석결과는 컨버전디자인의 적용 패턴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류되어진 패턴은 군집 분석에 의해 그 특성별로 분류하여 유형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서 유형화되어진 컨버전디자인의 방법에 대한 각 유형별 내용을 분석, 고찰하여 그 특성을 정리하였다.

3.2. 수량화3류에 의한 구조모델의 작성과 분석

(1) 수량화3류 분석 결과

수량화3류에 의한 계산 결과, 제5층까지의 누적 기여율 51.91%의 결과를 얻었다.<표 3> 기여율 12.8%의 제1층을 X축, 기여율 11.13%의 제2층을 Y축 그리고 기여율 9.94%의 제3층을 Z축으로 하는 카테고리 스코어의 산포도로부터 각 층의 의미를 해석하여 컨버전디자인 방법에 관한 구조모델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는 보다 의미있는 해석을 위하여 각 층의 변수들 중 절대값 1.0상인 인자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3> 각층의 고유치와 누적 기여율

층	고유치	기여율	누적기여율
제1층	0.4087	12.80%	12.80%
제2층	0.3555	11.13%	23.93%
제3층	0.3176	9.94%	33.87%
제4층	0.3018	9.45%	43.32%
제5층	0.2743	8.59%	51.91%

제 1층(X)의 정(+)-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을 보면, 회랑연결, 바닥재료의 연장, 오픈스페이스, 파티오, 아트리움, 투명벽, 실내외반전, 신표피의 비물성화, 재료복원'등이었으며, 부(-)방향의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는 필로티, 실내양식응용, 상징적 활용, 외관복원, 외벽질감맞춤, 파사드보존, 외부양식응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층(Y)은 정(+)-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 기존 배색사용, 동태보존, 외관보존, 개구부 보존, 필로티,

12)수량화3류는 질적 데이터를 사용한 인자분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체(샘플)의 다양한 카테고리에의 반응 패턴에 근거하여 개체와 카테고리의 쌍방을 수량화하여 유사한 개체와 카테고리를 도식화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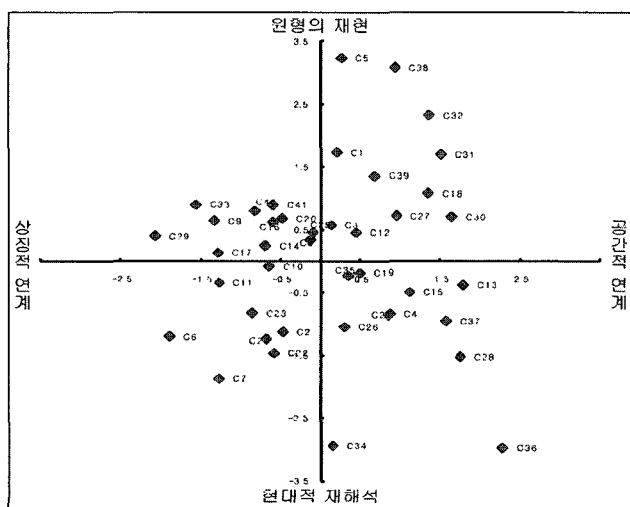
<표 4> 컨버전디자인요소와 각 사례별의 적용여부에 의한 매트릭스

	동태이 추보존	외피보존	내부일부보존	외피해체보존	내부해체보존	실내양식응용	외부양식응용	실내복원	외관복원	내부개수	파사드보존	처마선맞춤	바닥재료연장	신구유사재료	신구재료대비	재료복원	외표질감맞춤	신표피의 비물성화	기존배색사용	유사색조화	신구색채대조	내부패턴맞춤	외표패턴맞춤	출입구위치변경	개구부보존	입구개조	열린중정공간	오픈스페이스	필로티	파티오	투명벽	실내외반전	상징적 활용	환경요소보존	통문연결	회랑연결	아트리움	둘러싸기	수직연결	허프기용연결	마당연결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S17																																															
S18																																															
S19																																															
S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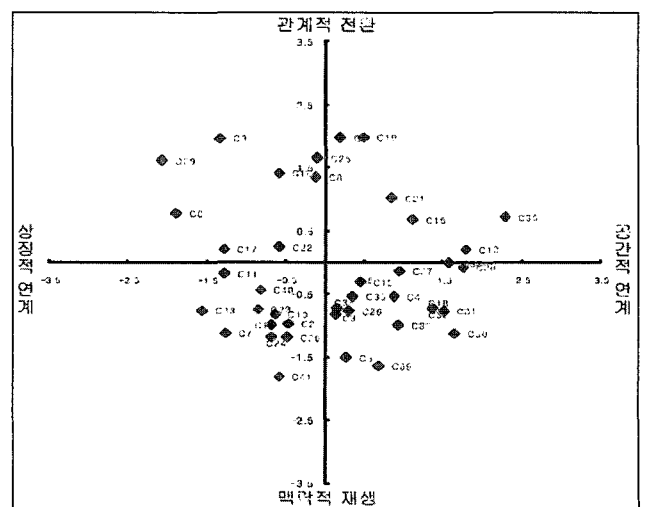
재료복원, 실내복원, 신구색채의 대조 등이 배치되어 있고, 부(-)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는 마당연결, 수직연결, 내부해체복원, 유사색 조화, 출입구위치 변경, 외부양식응용, 파티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축(Z)축은 정(+)-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 내부해체복원, 둘러싸기, 실내외 반전, 동태보존, 투명벽, 수직연결, 신표피의 비물성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방향에 위치하여 있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은 회랑의 연결, 환경요소보존, 외부양식응용, 오픈스페이스, 내부패턴맞춤, 출입구위치변경, 실내양식응용, 외피보존, 입구개조 등의 요소들이 분포되어 있다.

(2) 축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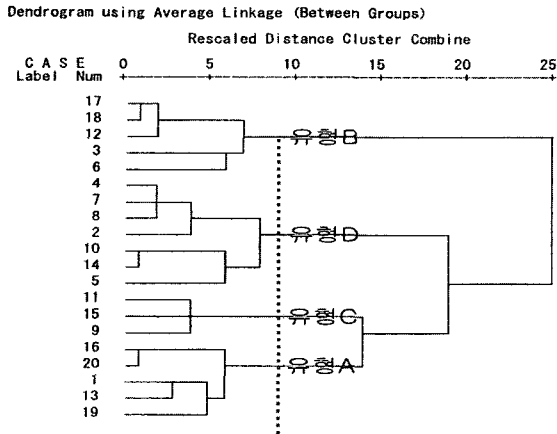
상기와 같이 각 구조모델의 좌표 상에 추출된 컨버전디자인 요소들을 토대로 각 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제 1축의 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회랑연결, 바닥재료의 연장, 오픈스페이스, 파티오, 아트룸, 투명벽, 실내외반전 등은 기존의 건축물과 새로이 계획되어 결합되어지는 공간들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적 요소들로 신, 구의 공간을 연계하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즉, 1축의 정(+)-의 방향은 공간적 연계의 방법에 관한 축이라 할 수 있다. 1축의 부(-)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는 필로티, 실내양식응



<그림 3> 제1축과 제2축으로 하는 카테고리 분포도



<그림 4> 제1축과 제3축으로 하는 카테고리 분포도



<그림 5>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용, 상징적 활용, 외관복원, 외벽질감맞춤 등으로 역시 기존의 건축물과 새로이 계획되어 결합되어지는 공간들을 양식의 통일과 조화와 같은 시각적 또는 상징적 의미에 의해 연계하는 디자인적 요소이나, 정(+)의 방향과 달리 물리적인 공간의 연계가 아닌 상징적인 요소들의 표현에 의해 신구의 공간을 연계하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축의 부(-) 방향은 상징적 연계의 방법에 관한 축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제 1축은 신구의 결합을 공간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연계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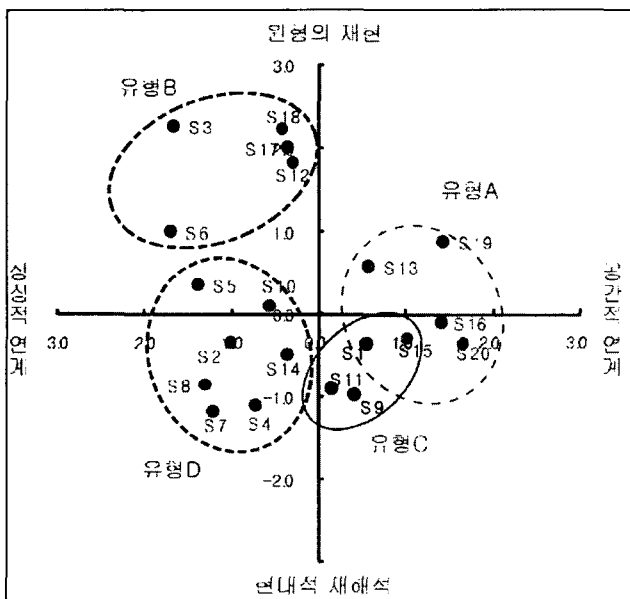
제 2축의 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기존 배색 사용, 동태보존, 외관보존, 개구부 보존 등이 있고 기존의 건축적 특성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 '원형의 재현'의 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축의 부(-)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들로는 마당연결, 수직연결, 내부해체복원 등이 있으며 정(+)의 방향의 요소들과는 달리 기존의 건축적 특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려는 방법적

접근을 보인다. 즉, 2축의 부(-)의 방향은 '현대적 재해석'의 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제 2축은 기존 건축의 디자인적 특성의 보존에 관한 문제로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느냐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은유적으로 재현하느냐에 관한 수법을 보여주는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축의 정(+)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내부해체복원, 둘러싸기, 실내외 반전 등이 있으며 기존의 공간이 갖는 특성을 본래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여 새로운 발견을 가능케 하는 방법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기존 공간의 소재와 세부의 시점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킴으로 본래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간적 매력을 창출하는 '관계적 전환'의 축이라 해석할 수 있다. 3축의 부(-)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컨버전디자인 요소로는 희망의 연결, 환경요소보존, 외부양식응용, 오픈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기존의 건축이 갖는 장소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맥락적 관계를 재현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있으며 '맥락적 재생'의 축이라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보면 제 3축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 설정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시점의 변화와 그 위계를 재설정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에 관한 축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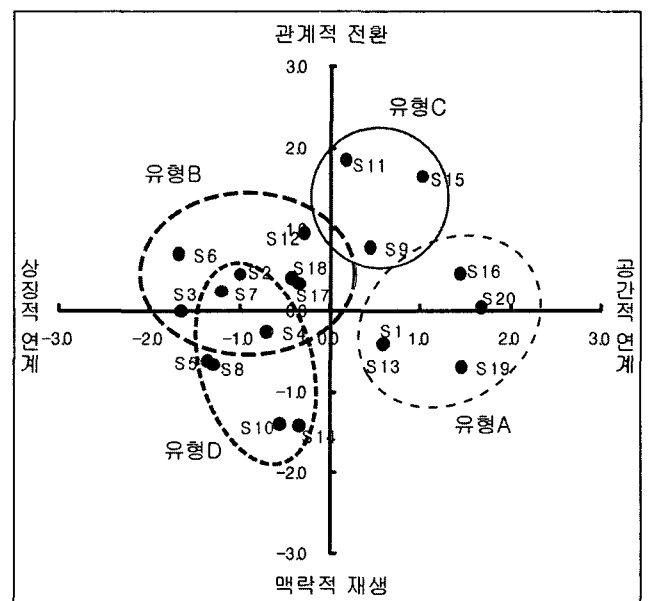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상기에서 얻어진 컨버전디자인 방법의 구조모델의 좌표에 실제 조사사례들을 수량화3류에서 얻어진 샘플 스코어에 근거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각 사례들의 샘플 스코어를 데이터로 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컨버전디자인 방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림 6>, <그림 7>

3.3.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별 특성분석

본 장에서는 군집분석에 의한 컨버전 디자인 수법의 유형화



<그림 6> 제 1축과 제2축으로 하는 유형별 샘플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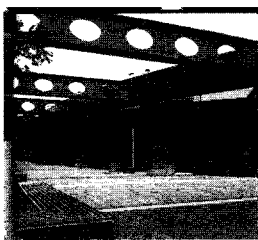
<그림 7> 제 1축과 제3축으로 하는 유형별 샘플 분포도

와 유형별 특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디자인 수법의 유형화는 앞서 분석한 각 샘플의 개별적인 특성을 보다 단순화하여 디자인 수법의 효과와 방법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 2>의 각 샘플별 디자인 수법들에 의거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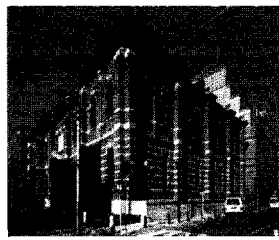
카테고리 스코어를 데이터로 한 군집분석의 결과 <그림 5>와 같이 4가지 유형을 얻었다. 각 유형별로 그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A: 공간적 연계에 의한 신구의 결합

유형 A는 S1, S13, S16, S19, S20의 사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사례들은 컨버전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가능케 하는 신구의 연계표현방식을 나타내는 제 1축 정(+)방향에 위치하여 연계방법에 의한 컨버전수법으로는 공간적 연계를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 2축의 위치를 보면 원형의 재현보다는 현대적 재해석에 의한 디자인적 표현을 채택한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와 사용자의 관점의 관계를 표현하는 제3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경향이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카나자와 시립도서관



<그림 9> 교토문화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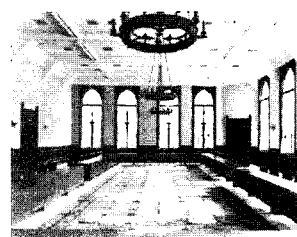
사례별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S1은 신구의 두 건물을 연결함에 있어 신 건물의 중정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바닥의 적벽돌을 구관으로 연장시켜 기존의 건물과의 재료적 측면에서의 연결을 인식시키며 보색관계의 철계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두 공간이 공간적으로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시켜 일체화된 공간구조를 표현하고 있다.<그림 8> 또한 기존 건물과 새로이 증축되어진 건물과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하여 신건물의 표피를 비물성화 시키고 지붕스케일이나 창문, 외벽들의 재료적 패턴과 조형적 디자인요소를 신건물에 적용하였으며 연결통로를 통하여 구건물과 신건물을 하나의 동선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맥락성을 강조하고 있다. S13은 역사적 경관지구 내에 있는 구건물을 보존하면서 구관보다 2배 높은 신관을 증축한 경우로서 우선 신축건물에 저층부를 만들어 구건물과의 스케일을 맞추도록 한 후에 둘을 통로로 연결 하였다. 또한 구건물은 실내외장 양식들을 복원하였으며 구건물 외벽의 줄무늬 모티프 등을 응용하여 신축건물에 적용하였다.<그림 9> 신구의 두 건물 사이에는 중정을 두어 두 건물이 공간적으로 연계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S16은 구건물을 해체 복원 하면서 신설동파의 대비를 내외 공간 디자인으로 연출하였다. 복원동과 신관 사이의 주동선에 아트리움을

배치하여 신구의 건물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를 이루어 융합되도록 하여 공간적 연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되어진 공간감을 외부로 이끌어내어 복원동의 외벽을 의지하여 신관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신구의 건물이 중정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시선을 공유하고 바라다 보이는 관계적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S19는 교토라는 역사적 도시의 분위기속에서 의외성을 강조하여 새로움을 느끼도록 의도한 것으로 본래 L자 건물의 외부공간을 커다란 모자형 중정공간이 되도록 둘러싸는 배치를 하였다. 신구건물은 이 중정을 중심으로 다시 회랑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다시 주위의 선적인 프레임과 색채에 의해 공간적인 연결과 디자인적인 통일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되었다. 신구건물의 사이에 열린 중정공간은 새것과 옛것, 닫힘과 열림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전통의 양식과 현대의 건축적 표현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S20은 본래의 벽돌조로 이루어진 거대한 창고 공간에 기존의 벽돌조의 외벽을 내진 공법에 의한 새로운 구조보강을 한 후 실내공간을 현대적인 재료로 동선과 구획을 나누어 과거의 외피 안에서 현대적인 실내공간이 위화감 없이 조화되도록 공간을 형성하였다.

위의 사례들의 디자인수법을 종합해보면 신구의 건물을 결합시키는데 있어서 그 차이들을 명확히 노출하고 관망할 수 있는 중성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 재료의 연장, 강조된 천장, 보와 프레임 등의 구조적 연결에 의한 공간적 연계감을 강조하여 신구의 공간이 융합됨과 동시에 상호 대비되는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수법은 통일된 디자인요소의 표현과 신구의 건축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상호의 특성을 명확히 대비시킴으로 공간적인 연계를 표현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형B: 의장적 요소의 활용에 의한 건축적 재현

유형 B는 S3, S6, S12, S17, S18의 사례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사례들은 제 1축 부(-)방향에 위치하여 연계방법에 의한 컨버전수법으로는 상징적 연계를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 2축의 위치를 보면 현대적 재해석에 의한 디자인적 표현보다는 원형의 재현에 의한 디자인수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제 3축에 있어서는 맥락적 재생의 관점보다는 관계적 전환에 의한 디자인수법에 중점을 둔 유형이다. 즉 유형 B는 형태적 변형이 가



<그림 10> 게이오 대학



<그림 11> 구고베거리지 15호관

장 적은 컨버전디자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S3는 많은 부분을 원형보존 및 재현을 통하여 컨버전디자인을 실행한 예로서 구 건물의 곡면 벽과 돔의 옛 양식을 그대로 살려 물리적 변형을 최소화하였으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정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디자인 양식을 응용하여 필로티를 새로 디자인하는 등 상당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양식의 보존과 재현이 이루어진 예이다. S6은 S3와 유사한 사례이며 설계당시의 양식과 의장적인 복원에 중점을 두고 컨버전디자인이 이루어졌다. 대열람실을 대회의실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본래 공간의 조형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지붕 주변의 침탑도 복원하여 양식적인 상징성을 추구하였다.<그림 10> S12 역시 양식적인 복원을 목적으로 실내마감 재료와 의장적인 요소들을 복원하였으며 기능적 프로그램으로는 호텔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신축 부분이 추가되었고 연결부분을 코어로 처리하여 전체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켰다. S17은 동태보존을 기본으로 외관과 얼룩으로 오염된 입구도 원형 보존한 후 구조적인 보강처리를 하여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도록 하였다. 벽돌체의 외부구조를 원형 보존하면서 독립적인 목구조로 된 내부구조를 삽입하여 내부평면을 구성함으로써 건물 본래의 원형을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목적과 기능을 위화감 없이 충족시키고 있다. S18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건물을 내진공법을 구사하여 원형대로 전체복원 한 사례이다.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여 개구부와 담장을 포함하여 문화재수리 법에 따라 복원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변경 없이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원형 재현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11>

이상과 같은 유형B의 사례들은 양식적인 재현과 복원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조적인 보강처리 만을 하거나 증축에 의한 신축부위에 대하여는 기존부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기능적인 제한을 해결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유형B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의 보존, 재생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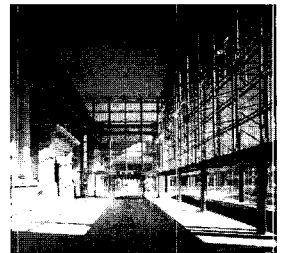
(3) 유형C: 관계적 전환에 의한 재구축

유형 C는 S9, S11, S15의 사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사례 중 가장 적은 수의 사례가 속한 그룹이다. 이 사례들은 제 1층 정(+)-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계방법에 의한 컨버전디자인 수법으로는 공간적 연계를 사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 2층의 위치를 보면 현대적 재해석에 의한 디자인수법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제 3층에 있어서는 맥락적 재생의 관점보다는 관계적 전환에 의한 디자인수법에 중점을 둔 유형이다. 즉 유형 C는 카테고리 구조 분포 상 3층의 관계적 전환을 사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제 1층의 정(+)-방향 즉, 공간적 연계감의 표현수법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 두 수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규 건물의 공간적

연계를 관계의 전환이라는 수법과 함께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카가와토요히코 자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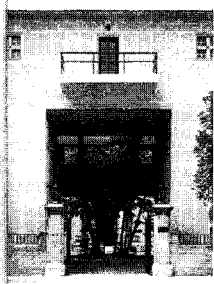
<그림 13> 치바시 미술관

유형 C는 사례의 예는 적으나 기존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변형으로도 새로운 디자인적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사례 S9는 오래된 벽돌조 공장건물들을 상업물로 컨버전디자인 한 사례이다. 전체 면적의 25%를 해체한 후 중앙에 파티오를 설치하여 신규 건물의 공간적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이 파티오는 동선을 유도하는 기능과 신규의 건물을 상호간에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장소적 제공이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외벽을 부분적 유리 스크린으로 대체하여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파티오와 내부 상점 간의 공간적 연속성을 꾀하였다. 조적의 기존 외피의 보존과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재료의 흔적들을 보존하여 신규 건물의 대비에 의한 위화감을 감소시키고 있다. S11은 내부 공간을 해체하여 그대로 신축 건물 내에 이전하였으며 과거의 기억을 담은 연계공간으로 중정을 만들고 캐노피를 설치하면서 바닥의 축선에 유리블럭을 깔아 건물전체에 일정한 통일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치원으로 전용된 보육실 건물과 사무실 건물사이의 공간은 상부층 아카이브식 지붕을 이어 기존의 외벽들이 내벽화되는 관계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공간은 신규의 건물을 연계하는 중간영역적 의미의 공간이다.<그림 12> 이는 기존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적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S15는 관계적 전환이라는 특징을 가장 직접적이고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과거의 은행건물을 그대로 이축보존하고 전체를 둘러싸고 동시에 1층의 증축부위를 아트리움 로비로 기능하게 하는 수직적 증축을 실시하였다.<그림 13> 이와 같은 수법을 통해 구 건물 외부공간의 내부화가 이루어져 기존 공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므로 의외성이 풍부한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증축외벽을 투명 유리벽으로 비물성화 시킴으로써 기존건물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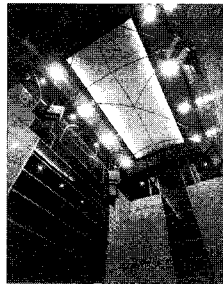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유형 C의 사례들은 신규의 대비를 공간적인 변화를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 사례들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건물과 사용자의 관계를 전환시켜 줌으로써 기존의 건물이 갖지 못하는 건축적 특성을 연출하고 재창조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4) 유형D: 상징적 연계에 의한 맥락적 재생

유형D는 S2, S4, S5, S7, S8, S10, S14의 7개 사례들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형 D는 전항에서 설명한 유형C와 가장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 컨버전디자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연계보다는 상징적 연계를 기본 수법으로 하고 있으며 근대건축물의 원형 재현보다는 현대적인 재해석에 의한 새로운 디자인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14> 요코하마 개항 자료관



<그림 15> 니혼화재 요코하마 지점

S2는 신구 건물의 조화를 목표로 신관과 구관의 건물 높이와 스케일 그리고 구관의 외벽재료와 패턴과 유사한 텍스처와 패턴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구건물의 요소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관의 입구 부분을 필로티로 처리하여 과거의 기억을 상징하는 정원의 나무 한그루를 보존함으로써 기존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계는 상징적인 연계감을 표현한 컨버전디자인 수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그림 14> S4는 신 건물에의 구 건물 파사드의 재현과 처마선 맞춤, 유사색상과 유사재료의 사용 등 구 건물의 디자인 요소들을 현대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재현하므로 기존 근대건축물이 갖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연계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내부의 은행 객장공간은 박물관의 로비공간으로 활용하고 신구의 건물을 연결하는 좁은 사이공간을 코어화 하여 공간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현대적인 공간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S5는 외부를 건립 시 모습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기존 구 건물의 마감재를 재현하고 정면 현관을 원형 보존하였다. 또한 과거의 디자인 모티브를 응용하여 현관홀의 로비 등에 사용하는 등 구 건물의 이미지의 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원형 그대로의 재현이라기보다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구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는 현대적인 시점으로 개수하여 건축의 외부와 내부에 서로 다른 시간적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S7은 공장의 기관실을 집회장으로 컨버전한 것으로 외피와 파사드를 보존하면서 정면의 아치창을 2층 내부의 볼트천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구 건물의 디자인과 신축되어진 건물의 디자인요소를 일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 구 건물의 열주를 상징적 구조물로 남겨두어 상징적 연계를 꾀하고 있다. S8은 건물의 외

관 뿐 아니라 주변의 경관까지 보존하여 주변 환경과 구 건물과의 맥락성을 유지하고 소재 지역의 특성을 표현함으로 특유의 장소성까지도 재현하고 있다. S10은 현대적인 재료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구 건물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전통적인 모티브에 따른 격자무늬 문과 색조의 활용, 색채대비로 본래의 건물이 갖는 이미지와 분위기를 살린 컨버전디자인이 이루어진 예이다. S14는 수직적 증축이 이루어진 예로 파사드의 보존뿐 아니라 해체복원 공법을 이용 외벽의 일부를 이축 복원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 하였다. 반면에 구 건물 양식의 응용으로 볼트지붕을 설치하였고 외벽의 모듈 등을 구 건물의 파사드와 조화되도록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구 재료의 현대적인 재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부는 모두 개수하여 현대적인 가운데 과거의 양식이 느껴지도록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중층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5>

유형D의 사례들은 상징적, 양식적인 응용을 표현수법으로 구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을 유지하고 상징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재생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 건축물의 컨버전디자인에 있어서 그 수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량화3류에 의한 컨버전디자인 요소들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군집 분석에 의한 컨버전디자인 사례의 유형화와 유형별 사례들의 디자인 수법의 특성을 고찰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 고찰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건축물의 컨버전 디자인 수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구의 대비에 의한 공간적 연계

신구의 대비를 공간적인 연계에 의해 표현하는 컨버전디자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것과 옛것이라는 두 가지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공간적인 연속선상에서 병치되고 조화되도록 하여 신구의 건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바닥 재료의 연장, 보와 프레임 등의 구조적 연결에 의한 공간적 연계감의 강조 등을 통하여 신구의 공간이 융합됨과 동시에 상호 대비시켜 두 공간간의 위화감을 감소시키므로 공간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컨버전디자인 수법은 통일된 디자인요소의 표현과 신구의 건축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상호의 특성을 명확히 함으로 상호간의 공간적인 연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2) 건축적 요소의 재현에 의한 보존적 재생

과거를 직설적이고 물리적으로 제시하여 시간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양식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과거에 대

한 기억에 의존하여 현재와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양식적인 재현과 복원을 통하여 과거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조적인 보강처리 만을 하거나 증축에 의한 신축부위에 대하여는 기존부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기능적인 제한을 해결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의 보존, 재생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외관 및 파사드의 보존, 개구부의 보존 그리고 실내 양식의 보존은 물론 주변요소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상징물의 보존과 재현 등이 있다. 또한 취약한 기존의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구조 강화기법으로 기존 구조와는 별개의 독립구조를 삽입하거나 설치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된다.

(3) 관계의 전환에 의한 새로운 발견

사용자와 건물의 위치관계를 바꾸어 줌으로써 기존건물의 형태 변경이나 손상 없이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건물과 사용자의 관계를 전환시켜 줌으로써 기존의 건물이 갖지 못하는 건축적 특성을 연출하고 재창조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식이나 의장요소의 응용에 의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기존 공간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이 선행되어지는 것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 건물에 대한 뜻밖의 경험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 건물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며, 또한 앞서 이야기한 '건축적 재해석'이란 건축가의 책임과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컨버전디자인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유추에 의해 상징화된 맥락성의 재현

과거를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추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흔적으로 남겨놓아 사용자들이 그것을 말 그대로 과거의 상징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이고 양식적인 응용을 표현수법으로 하여 구 건물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을 유지하고 상징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장소성을 재생하는 컨버전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피나 파사드의 보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있는 그대로의 활용에 더하여 유사한 재료나 색채, 패턴 등의 활용, 양식적 응용 등으로 과거를 회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건축이 지닌 공간적, 시간적 맥락을 인식시킨다. 이 수법은 역사성을 지닌 거리경관이나 건물 군들 간의 관계가 중요할 때 쓰이는 컨버전디자인 수법이다.

이상과 같은 컨버전디자인의 의의와 디자인 수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컨버전디자인은 역사적 건축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실행할 수 있는 타당한 실천 방안이며 과거건축물의 재구축을 통해 얻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수법에 있어서는 단순 보존이나 직설적인 의장요소의 표현만이 아니라 공간이 지닌 속성을 활용한 보다 창의적이며 동시

에 실용적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연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앞으로 컨버전디자인은 단순한 레노베이션의 논리에서 벗어나 다가올 미래의 건축 현실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에게 건축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윤영선, 리모델링 건설시장의 발전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2. 강혁, 텍스트로서의 과거 건축사 해석에 대하여, 건축역사학회, 9206
3. 이주형·장석하, 한국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2006.3
4. 이완건, 서울의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 보존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론, 2005
5. 박근수, 한국 근대건축물의 보존관리지침 구성방안연구, 명지대 박론, 2003
6. 이완건·조영배, 역사성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7. 박진향, Renovation에 의한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과 전용, 홍대 석론, 2001
8. Ernest Burden, Architectural Presentation, Mc Graw-Hill, 2003
9. David R. Dibner & Amy Dibner-Dunlap, 하재명 역, 건축 증개축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10. Kenneth Powell, Architecture Reborn, Calmann & King Ltd, 1999
11. C. Norberg-Schulz 저,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2002
12. Brent C. Brolin, 박두용 외 2인, 맥락적 건축, 세진사, 1996
13. 사사키 마사유키 지음, 정원창 옮김, 창조하는 도시, 천화, 2001
14. 리틀 영영사전, 시사영어사, 1983
15. 김정동, 근대건축 기행, 푸른역사, 1999
16.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문화사, 1997
17. 봉일범, 누적도시, 시공문화사, 2005
18. 봉일범, 도시:사건과 구조, 시공문화사, 2002
19. 조성태·강동진·오민근, 일본 가나자와 역사문화 경관 관리 특성, 한국도시계획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20. 최선주, 일본의 역사환경 보전재생을 위한 제도, 대한건축학회, 9607
21. 신생화·예명해·최창길·김영희, 역사적 환경의 보존 수법에 관한 연구-일본 코우베시를 사례로,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2002.6
22. 이성창·김도년, 일본 마루노우치 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계획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대회
23. 소홍렬, 문화의 기능, 전이 그리고 창조, 건축 93.5
24. 우경국, 흔적 지우기와 기억 되찾기, Plus 9602
25. 박길룡, 한국 현대건축의 수명, Space 9508
26. 오덕성, 독일의 역사적 건축물의 지속적 이용사례:적용적 재이용, Space 9508
27. 허범팔, Plus 8706
28. 양상호, 시대의 흔적을 담은 도시공간의 모순, Plus 9609
29. 우경국, 또 다른 의미의 존재와 시간, Space 9507
30. 김진석,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생성물로서의 건축, Space 9507
31. 윤인석, 무대세트로 전략한 근대건축, Space 9508
32. 이승배,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복합체-복원의 이해, Space 9508
33. 菅民郎, 多變量解析の實踐, 現代數學社
34. 신진축, 1970. 1 ~ 2005. 6

<접수 : 2007. 2. 28>